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흡7련대칭호 쟁취운동열성자대회가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8월 2일과 3일에 진행된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가 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고 군대중운동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이 분석총화되었으며 혁명무력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지는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전군에 대중운동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토의되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 태양의 열과 정으로 주체적군대중운동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시며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회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대회가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기치 높이 인민군대를 당과 혁명보위의 결정체로 만들며 군력강화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의 개회를 선언하시었다.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대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군대중운동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 전군을 당과 혁명을 결사보위하는 오늘의 오중흡7련대로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참가자들이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당의 참된 선군혁명투사들로 키우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중흡

7련대칭호쟁취운동은 당군건설의 총로선이라고 하시면서 이 운동은 오늘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항일의 오중흡7련대의 나팔소리가 전군에 힘있게 메아리치게 하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는것이 당의 도이라고 하시면서 전군이 항일의 7련대, 전화의 근위부대가 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정치사상강화, 도덕강군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싸움준비완성에 모를 박고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는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오중흡7련대칭호를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한 운동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쟁취한 부대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힘을 넣어 이 운동의 성과가 3대혁명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이번 대회는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에서 근본적전환을 일으켜 전군을 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총진군, 총동원대회로 주체의 건군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모두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시

대정신을 창조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갈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폐회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결기, 총매진하여 당과 혁명보위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데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기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의 폐회를 선언하시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멋있다고, 공장을 문화성있게 정말 잘 지었다고 하시면서 앞을 내다보며 통이 크게 건설한것이 알린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에서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고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그들이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초소, 수산전선의 병기창을 높은 생산성과로 굳건히 지켜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

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종합조종실, 견본실, 그물작업반, 바줄작업반, 떼작업반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기술장비수준과 생산실태,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에 어구생산에 필요한 현대적인 제망기, 권사기, 성형기 등을 그쁘히 갖추어놓은 결과 지난 시기에 비해 공장의 기술장비수준과 생산능력이 훨씬 높아졌다고, 기계바다가 펼쳐졌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어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일데 대한 문제, 원료의 국산화비중을 최

대 대한 문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설비들을 운영하고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할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은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흠잡을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어구종합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훌륭히 건설할수 있는것은 당에서 준 과업은 오직 즉시 접수하고 무조건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는 결사판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때문이라고 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에서 전문수산사업

소들은 물론 섬과 해안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구분대들의 수산부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어구들을 마음먹은대로 팡팡 생산하여 충분히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보배공장,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부, 큰 밑천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규모가 큰 종합적인 어구생산기지를 일떠세운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